

2월의 기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1. 우리의 모든 짐과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밑에 모든 짐을 내려 놓을 때 참된 자유함을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자랑거리를 감추게 하고 사도 바울처럼 오직 십자가만을 나의 인생에 자랑거리로 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3.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주변을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분열과 아픔이 있는 곳에 다가가 함께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4.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를 잃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우리도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5.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을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전 세계의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모이기에 힘썼던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들이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 목사님) 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승, 오주봉, 이태원,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기도와 응답

기쁨이라는 14살 소녀가 저에게 간증을 하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첫 번째 간증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해서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 교회에서 하나님이 다정한 목소리로 “기쁨아”라고 부르시는 소리를 두 번이나 듣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나는 외롭지 않다. 잘 될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과도 잘 지낼 수 있게 되고 정말 기적 같았어요. 그 후에도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씩씩하고 밝게 자랄 수 있었던 건 그때의 하나님의 음성이 저의 친구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간증은, 이 아이가 작년부터 교회학교 금요철야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참 기특합니다. 철야예배를 한 주도 빠질 수 없는 이유가, “통성기도 시간에 마음에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말씀드려야, 일주일을 잘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기 싫은 공부도 왜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꿈을 주셔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보니 이 아이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마음을 따라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인생에 막다른 골목에 다르면 사람들은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어 주십니다. 찰스 스피얼 목사님은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February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DCEM 현장 르포로 되돌아보는 2002년 해외성회

<미국 시애틀성회>

잔잔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영화가 있다. 죽은 아내를 그리며 잠 못 이루는 한 남자에게 찾아온 사랑의 이야기를 로맨틱 코미디로 그린 영화다. 바로 이 영화의 배경이 된 시애틀의 중심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겨워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시애틀 시티교회 사람들이다. 이번 2월호에서는 조용기 목사에게 큰 영향력을 받아 세계선교와 지역사회에 열정적으로 사역을 펼쳐 오고 있던 시티교회 성회를 회고해보고자 한다.

담임목사 웬델 스미스(Wendell Smith) 목사와 시티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2002년 5월 5일부터 6일까지 DCEM총재목사 조용기 목사를 초청,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되짚었다. 전 세계 40여 개국에 파송되어 있거나 현지에서 선발된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세계선교대회(Global Strategy Conference)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새로운 비전이 전파됐다.

스미스 목사가 섬기는 시티교회는 지역봉사와 해외 선교, 인근 어려운 교회들을 지원하여 섬김과 나눔의 목회를 실천해오고 있으며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매스 미디어의 시대에 맞게 청년들과 젊은이들을 위해 새롭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모색하여 기독교 문화를 이끌어가는 교회이다. 특히 시티교회는 자기의 정육과 욕심을 죽이려는 개인기도와 중재를 위한 기도모임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이들의 기



▲ 시티교회에서 열린 세계선교대회(Global Strategy Conference)

도에 대한 이런 열정은 조용기 목사의 영향이 크다고 했다. “조용기 목사는 세계적인 교회를 이끄는 세계적인 복음주의 지도자입니다. 그의 사도적인 영향력은 그가 지니고 있는 개인적인 목회 능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교회는 매주 한번씩 그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죠. 조용기 목사가 이끌어온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세계를 향한 마인드를 지닌 모든 목회자들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과 기독교 지도자로서의 높은 소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티교회에 초청 받은 조용기 목사는 이날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 존재의 의미에 대해 설교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비난 그리고

저주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죄를 대신 짊어주셨기 때문이며 오아시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공중 권세를 잡은 악을 이기기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며 교회가 되는 열림으로 들어가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미국 사람들은 조용기 목사의 오중복음 삼중축복의 진수를 맛보고 놀랐다.

DCEM 총재목사 조용기 목사는 당시 시애틀에서 시티교회 주일예배 뿐만 아니라 노스웨스트 대학교 졸업식과 크리스천 웨이스 센터 교회에서의 주일 밤 집회 그리고 세계선교 컨퍼런스에서 총 4번을 단위에 올라 말씀을 전했다.



▲ 시애틀 시티교회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조용기 목사



▲ 함께 한 조용기 목사(중앙), 시티교회 웬델 스미스 목사(우), 크리스천 웨이스센터 케이지 트리트 목사(좌)



▲ 십자가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세계선교대회(Global Strategy Conference) 참석자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자연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자신의 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유대로 가서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1. 예비하시는 하나님

나는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끼치는 일이 있습니다. 1964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오순절대회의 강사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나 혼자서 달랑 짐 하나 짊어지고 선교여행을 다녔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미국 LA로 향하는 공항에서 브라질 경찰관이 오더니만 다짜고짜 여권을 보자고 하더니 그것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냥 가 버렸어요. 여권도 없고 얼마 안 되는 여비도 다 써버리고 브라질에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호텔에 갈 돈도 없고 차 탈 비용도 없고 완전히 무국적자가 되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서양 사람이 예쁜 딸을 데리고 나를 가만히 보더니만, 몇 번을 지나치다 다시 돌아와 “혹시 한국에서 온 조용기 목사 아니냐?”고 그래요. 알고 보니 미국 선교사인 그 분은 자신의 신학교 동창이 10년 전에 한국에 선교사로 갔는데 내 이야기를 적은 편지를 내 사진과 함께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브라질은 굉장히 부패해서 돈을 받으려고 나의 여권을 가져간 것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포르투갈어를 굉장히 잘 하는 그 선교사님 딸 덕분에 경찰서 본부까지 찾아가 결국은 여권을 되찾았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전 2:9)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분 집에 머물면서 사랑을 받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년 전에 내가 브라질에서 고아가 될 것을 미리 알고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당황하지 말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나를 위해 미리 길을 예비해 놓았다고 믿으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문제의 해답을 예비하고 계심을 알게 되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 회개를 할 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스스로 돌아보고 죄가 있다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편안한데 왜 나만 고난당합니까?” 슬피 울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는 자기의 삶을 되돌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풍랑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시도록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라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심판하기로 작정하실지라도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그 심판의 손길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3.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요나의 물고기 사건 이후의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일까지도 예비하시는 분이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초막을 짓고 앉아서 성이 무너질 때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박 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한밤중에 박 넝쿨 하나가 쭉쭉 자라더니만 새벽이 되니까 박 넝쿨이 요나의 초막을 덮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요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벌레 한 마리가 기어 오더니만 박 넝쿨의 줄기를 싹뚝싹뚝 잘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가서 박 넝쿨이 쪼글쪼글하게 말라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서 그 작은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세수하고 머리를 빗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빠지지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계산에 넣어 생각한다고 하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문제를 당했을 때,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손길에 전폭적으로 맡기십시오. 그러면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방법을 예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여러분의 일생을 이끌어 주시고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산의 신학과 목회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1)

박명수 교수는 영산 조용기 목사의 사상적 근원을 미국 오순절 은사운동과 1907년 평양대부흥으로부터 시작된 한국 성령운동에서 찾는다 (“한국교회의 전통에서 본 조용기 목사의 오중복음”, 266p~267p). 사역 초기부터 조용기 목사는 세계오순절운동 관계자들과 밀접하게 동역해왔기에 그의 사상과 신학이 미국 오순절운동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된다.

그렇다면 조용기 목사의 사상은 어떤 의미에서 한국교회의 성령운동과 맥이 닿아있는 것일까? 박명수 교수는 1907년 평양대부흥이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불리었다는 점, 김선주 목사에 의해 재림의 복음이 강조되었고 김익두 목사에 의해 신유의 복음이 강조되었다는 점, 조용기 목사의 오순절운동이 한국에 알려지기 전에도 이미 한국교회에는 ‘성령침례’, ‘오순절’, ‘순복음’과 같은 용어들이 널리 사용되어왔다는 점 등을 들어 조용기 목사가 한국교회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주장한다.

조용기 목사는 이런 전통과 유산을 자양분으로 삼아 자신만의 독특한 신학을 정립했다. 그 신학의 핵심이 바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다. 오중복음은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이다. 조용기 목사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으로 이해한다(조용기,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35p). 이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조용기 목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네 가지로 이해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둘째,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그 죄로 인해 현세에서는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겪게 되고 내세에서는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 셋째, 사랑의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 영원히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들을 대신해

죽게 하셨다는 것. 넷째, 인간은 누구든지 죄인을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오중복음과 삼중축복』, 35p~36p).

그렇다면 오중복음은 조용기 목사의 목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가장 먼저 ‘설교 철학’으로 작용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철저히 성경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대속 중심의 기반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것에서 제가 추출한 도식을 ‘오중복음’이라 합니다. 저는 십자가를 통한 오중복음을 저의 설교의 가장 중심적인 베이스로 삼고 이 위에 모든 것을 형성해나갑니다.”(조용기,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 129p). 또한 오중복음은 조용기 목사의 ‘목회 철학’이기도 했다(임형근, “목회적 관점에서 본 영산의 오중복음 이해”, 77p~78p).

